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44 호 현대불교
2023년 7월 19일(음 6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 일체 생활을 닥치는대로 말겨 놓고 가는것이 죽는길이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같이 돌아가지만 분명히 너 나는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진리의 길을 탐구하고 함께 가는 도반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고 앉았을 때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일체가 다 도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하신 그 뜻을, 또 사방을 둘러보시고 일곱 걸음을 뗀 그 뜻을 우리가 새겨 본다면, 그때부터 불교가 이루어졌고,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받고 공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삼라대천세계가, 아니 지금 말로 우주 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는 거요. 우주 천지의 근본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세상의 살림살이의 근본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과 직결돼 있다. 그러면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이라고 한 그 뜻을 우리가 새겨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다든가 그런 것을 읽어 봤다든가 하는 예도 없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이전부터 직결돼 있는 그 자체의 근본, 즉 우주 천지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니 그 근본을 깨쳤을 때는, 내 육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마쳤다면 그것과 직결돼 있는 외부의 모든 중생들도 더불어 같이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이따가 질문하십시오.

또 두 번째, 부처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신 뜻은 '무공무색(無空無色)' 이니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뜻을 비유해서 사방을 둘러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발자국을 떼었을 때는 "네가 있고 내가 있느니라. 바로 찰나의 생활이 여여하고 그대로 진리의 길이니라." 하는 그 뜻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은 말 없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갈 때 학식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어떠한 이름으로써 이론으로써 공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역대에서부터, 즉 말하자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고, 어디를 향해 지금 그대로 여여하게 걷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수화풍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일체 생명이 다 지수화풍에서 생겼고, 그 생명으로 인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무정물이나 또, 일체 생물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사라지고 거기서 사라졌다가 다시 뜨고 하는 이 진리, 허공에 뜬 꽃잎 한 잎이 바람이 너무 세면 이지러지고, 또 어떠한 개체가 바람을 막아 주면 이지러지지 않고 이러다가 떨어지곤 하죠.

이 모두가 뜬구름 같은 이 환상천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풀포기 하나 버리지 않고 같이하고 있다는 것, 곤충 하나 버리지 않고 또는 축생 하나 버리지 않고 무정물이나 식물 하나 버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그 내면세계의 한 마음 속에 같이 항상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함께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으나 아까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너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 나가 있긴 있는데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공해서, 그 가운데 무엇이 특출나게 꼭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 같이같이 서로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느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마디는 언급해야 되는 문제인데,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길어지니, 앞으로는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는 질문하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다. 일체를 놔라! 맡겨 놔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으니깐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오지만 그 전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활이 참선이며 좌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꿇어앉아서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톡톡한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대로 공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맡겨 놔라, 일체를. '일체'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그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나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도 죽어야 한다 하는 이유는 무조건 첫 번에 죽어야 나를 본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나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견을 해 가지고 내가 '나' 라는 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습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꿈에 부처님이 보이면 좋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한 귀신을 보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바깥으로 신호가 오면 신호가 온다는 발설을 하질 않나, 보면 보는 것대로 들으면 듣는 것대로 그것들이 변해서 돌아가서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논의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로 놓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고' ,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비밀을 비밀로 둬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나를 발견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것이 보이든 들리든, 내가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우리는 그것을 굴릴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고 보이고 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첫째, 불법에 누가 되게 하고 둘째, 선원에 누가 되게 하고,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하고 셋째, 자기한테 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발견했을 때는 그게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꿈에 가르치는 것도 생시에 가르치는 것도 둘이 아니게 항상 자기가 비밀로 두고 지키면서, 봐도 본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알아도 안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행을 해 보는 그러한 막강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타심통이나 숙명통, 천이통, 신족통, 천안통, 이 오신통에서 딱 벗어나면, 바깥의 이 다섯 가지 통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몸을 코치를 못 해요. 내 몸 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 속에

☞ 22면으로 계속

